

# 순창군, 귀농·귀촌 갈등 해결 전담반 운영

### 지역사회 왕따·갑질 방지 총력...도시민 유치 적극 홍보도 귀농자 소득·농업 창업 지원 등 안정정책에 62억원 투입

순창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도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귀농·귀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 갈등 해결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왕따와 갑질 등을 막겠다는 의이다.

전담반은 담당 부서와 각 읍·면 산업계장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귀농·귀촌인 사이 또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순창군은 분야별로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귀농자 소득 사업,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귀농자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및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에 모두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청년 인구 유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청년실업농장, 청년 농촌문화체험, 청년 귀농·귀촌 기술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도시민 유치교육, 작물기술교육, 장기합숙 교육 등 총 44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화합 한마당 행사, 재능나눔 사업 등 46차례에 걸쳐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과 만남의 자리 등을 마련할



순창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최근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예정이다. 이정주 순창군 농축산과장은 "올해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대도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경영 교육 등 전방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곡성군이 관광 랜드마크인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의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곡성군 제공>

## '곡성 랜드마크' 섬진강 증기기관차 리모델링

곡성군은 관광 랜드마크인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정상운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는 곡성군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15년 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았다.

이번 리모델링의 키워드는 '뉴트로'로, 현대적인 모습이 남아있던 기차 내부를 옛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살려 복고적인 감성을 재현했다. 이를 통해 장년 이상 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노후 장비와 편의시설을 교체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에서 가정까지 10km 구간을 왕복하는 관광열차로, 섬진강 물결처럼 시속 30km의 여유로운 속도로 느릿느릿 흘러간다. 기적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하늘 위로 흩어지면 탑승객들은 어느새 추억과 여유에 빠져든다.

곡성군은 이번 증기기관차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섬진강 레일바이크 출발 운행구간을 기존 침곡역에서 가정역으로 분리 조성할 예정이다. 또 증기기관차 정차역을 만들고, 정차역별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 통해 방문객들에게 곡성에서의 더욱 특별한 시간여행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홍물 방치' 익산 동부시장 28층 주상복합 재탄생

### 재건축사업 전북도 심의위 통과

17년동안 도심 홍물로 방치되던 익산 동부시장이 28층 주상복합건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이 최근 전북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981년 개설된 동부시장은 익산의 대표 시장이었으나 1992년 누전으로 인한 화재와 1995년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 등으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 1997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계획이 수립됐다. 2003년에는 시장이 철거됐다.

하지만 토지분쟁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장기간 홍물로 방치됐다. 게다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새로운 사업시행사와 동부시장재건축조합이 새로 마련한 사업계획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전북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익산 대표시장이던 동부시장이 17년동안 도심 홍물로 방치됐다가 전북도 시장정비사업심의를 통과, 28층 주상복합건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철거된 동부시장 일대(왼쪽)와 심의위를 통과한 주상복합건물 조감도. <익산시 제공>



익산 대표시장이던 동부시장이 17년동안 도심 홍물로 방치됐다가 전북도 시장정비사업심의를 통과, 28층 주상복합건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철거된 동부시장 일대(왼쪽)와 심의위를 통과한 주상복합건물 조감도. <익산시 제공>

그러다 지난달 30일 전북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에서 지하 4층-지상 28층의 주상복합 사업 추진 계획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시행사, 조합 측과 함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 등을 조정할

결과라고 밝혔다.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지하 1-4층 주차장, 지상 1-2층 판매시설, 지상 3-28층 공동주택(284세대)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체 연면적은 5만6880㎡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시행계획

확인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이고 인근 상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전주시, 빈집 정비해 반값 임대주택·주차장 등 활용

전주시는 장기간 방치 중인 빈집을 정비해 반값 임대주택, 주민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올해 2억6000만원을 투입한

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빈집 13개 동을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변 시세의 반값에 빌려주는 반값임대주

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지역주민들 쉼터, 공용텃밭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벌인다. 전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억9000만원을 들여 빈집 141

개 동을 정비했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28일까지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된 장흥 관산읍 방촌마을의 '방촌유물전시관'. <장흥군 제공>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방촌유물전시관 공립박물관 등록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방촌유물전시관이 장흥지역 첫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장흥군은 이들 박물관 2곳이 지난달 전남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5일 밝혔다. 등록번호는 각각 '전남-공립12-2020-01호'와 '전남-공립12-2020-02호'다.

그동안 학에 인력과 등록 유물 부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던 방촌유물전시관은 개관한 지 15년 만에 등록이 확정됐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개관 5년 만이다.


방촌유물전시관은 장흥의 대표적인 전

통 민속마을인 방촌마을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승하고, 호남실학의 대가인 존재 유희규 선생의 관련 유물을 전시 및 소장·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장흥동학 관련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전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시설인 2곳이 장흥지역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와 국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1233-2, 전용면적 : 137.16㎡(41.5평) 대지권 : 42.23㎡(12.8평) 현 고기전문점 식당 공실상태 감정가 11억, 최저가 (56%) 6억1천6백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1층 제조업소, 2층 단독주택사무소 감정가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45%) 2억7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동구 계림동 토지 : 195㎡(59평) 건물 : 516.91㎡(156.4평) 지하1층 지상3층, 재개발 투자적합 감정가 6억4백만원, 최저가 (70%) 4억2천3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85㎡(86.2평) 건물 : 871.4㎡(263.6평) 지하1층 지상4층 감정가 8억1천8백만원, 최저가 (70%) 5억7천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풍향동 39-7번지 토지 : 496㎡(150평) 건물 : 54.04㎡(16.3평) 감정가 2억1천4백만원
- 주 택** 광주 남구 서동 97-4번지 토지 : 193㎡(58.4평) 건물 : 140.39㎡(42.5평) 감정가 2억 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